



2021년 12월 5일(제1064호) **다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누가 만들었는가”

kOs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 골동품(그림, 그릇 등)을 가져오면 전문가들이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감정을 해주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딘가 상태가 좋지 못한(?) 물건들-귀 떨어진 도자기나 이가 나간 접시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감정 가격이 수천만 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마트에 가면 만 원이면 훨씬 좋은 것을 살 수 있을 텐데.... 높은 가격을 받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누가 만들었는가’ -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왜 사람이 소중한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엄마니까 잘해줘야지.’, ‘저 사람은 내 친구니까 잘해줘야지.’ 같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엄마가 사람이니까 잘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내 친구가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같은 논리로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또한 원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또한 하느님의 작품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렵지만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아예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눈에 별로여도 하느님 눈에는 여전히 귀한 작품이라는 진실을 기억하면서, 조건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보는 한 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우(베드로) 신부
비행(25시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바룩 5,1-9

회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 시 필리 1,4-6.8-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루카 3,1-6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두 번째 시한

그들 사이에 그렇지 아니한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천주교는 시파한테서는 용인되고 있으나, 벽파한테서는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파는 천주교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김 대왕 대비 즉 현 임금님의 조모는 시파에 속하고, 젊은 대비 즉 현 임금님의 모친은 벽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신들의 대부분은 벽파입니다. 그리하여 벽파가 시파에 반대하여 쫓기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그들의 모든 의견을 배척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무죄한 천주교 신자들을 근절할 행동을 취하므로, 여러 번 박해가 일어나 많은 순교자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천주교의 제일 큰 적은 조만영(趙萬永)인데, 그는 젊은 대비의 부친입니다. 그가 오늘날 이 나라 정치의 최고 권력을 잡고 있으며, 그의 동생 조인영(趙寅永)은 영의정이고 그의 아들(즉 趙秉龜)은 병조 판서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박해는 모두 다 주로 조만영과 조인영의 계획으로 벌어졌는데, 신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하고 신부님들을 죽이라고 명한 자도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신부님들을 죽이고 나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군함을 타고 들어와 그들에게 복수를 할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나라에서 무죄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게 하였으므로 필연코 전쟁이 일어나 온 나라가 큰 재앙을 입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떠들어대고 있으며, 지금은 전쟁을 기다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국법대로 하면 외국인들은 죽일 수가 없고 오히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인들, 달단인들, 일본인들은 필요한 것들을 주어서 반드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들을 죽인 것은 확실히 종교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신부님들이 조선에 온 것을 교황님과 프랑스 왕의 파견에 의하여 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을 죽인 후에, 매우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졸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정부가 신부님들을 죽임으로써 프랑스 왕을 모욕하는 불경죄를 범한 것인데, 한편 그들은 일찍이 영국인들로부터 서양의 왕들은 자기 백성이 피살된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목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지금은 조용히 곁에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할까.
많은 궁금증도 있고.
질문도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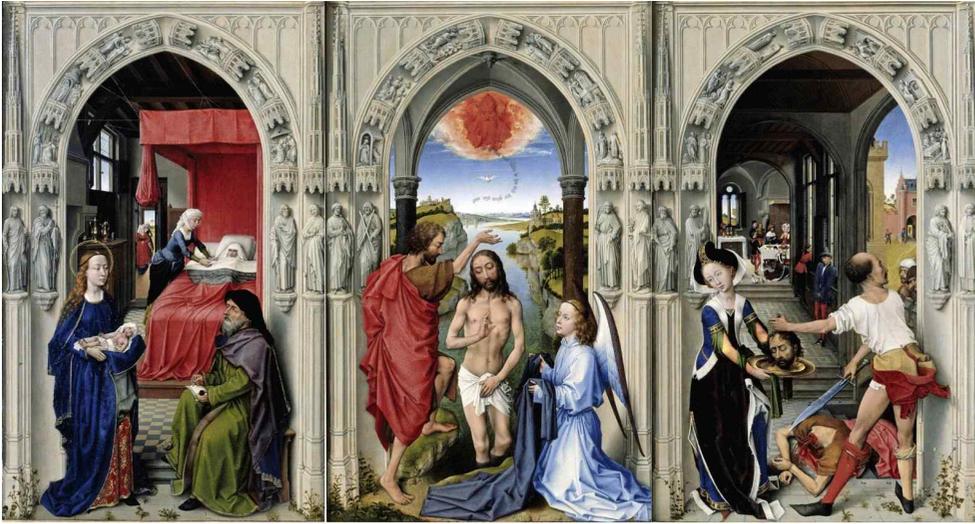
지금은 가만히

지금은 침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곁에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상화이야기

세례자 요한 제단화



로지어 핀 데이 바이덴
1455년 ~ 1460년 작
나무 패널 위 유화
(각 제단화 크기:
77x48cm)
베를린 미술관



바이덴이 그린 이 3폭 제단화는 세례자 요한의 생애가 그려져 있는데, 왼쪽부터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는 세례자 요한이 그려져 있다. 제단화 모두는 실내 혹은 외부 공간과 교회 건물 같은 석조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그려졌고, 인물들은 이 두 경계를 가로질러 존재한다.

가장 왼편에는 방금 세례자 요한을 출산한 엘리사벳이 침대에 누워있는 실내 공간이 뒤쪽으로 보이고, 전경에는 출산이 또한 가까우신 성모님이 갓 태어난 세례자 요한을 요한의 아버지인 자카리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카리아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종이에 아이의 이름을 적고 있다. 성모님과 자카리아의 표정에서 모두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상하고 있는 듯, 경건하면서 엄숙한 분위기이다. 석조 건물의 아치에는 수태고지와 성모님의 결혼,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성모님과 예수님의 탄생 등이 조각처럼 그려져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대림 제2주일: 성요셉 윤성환 신부

◆ 교구장 동정

- 칠성 성당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

때: 12월 5일(주일)

- 충무대 성당 신부 내방

때: 12월 6일(월) 12:00

- 서울군중후원회 송년감사미사

때·곳: 12월 6일(월) 15:00, 명동 가톨릭회관

- 제14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
착좌미사

때·곳: 12월 8일(수) 14:00, 주교좌 명동대성당

- 만포대/인천해군 성당 신부 내방

때: 12월 10일(금) 12:00

- 쌍용(2군단) 성당 증축 감사미사

때: 12월 11일(토) 16:00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